

2016 년 8 월 7 일(주일) 말씀과 묵상(7)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시 19:7-14)

<도입>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축복을 누립니다. 사람은 먼저 말하도록 창조되지 않고, 듣고 깨우침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생각과 말은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듣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진리를 살 수 없습니다.

[1] 말과 들음이 품은 의미

말을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잘 못 알아듣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상황에 맞게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인지의 왜곡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왜곡된 것을 잘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곡의 원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과 분리된 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하신 열매를 따 먹은 후에 생긴 증상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겁이 나고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수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이고 죄의 증상입니다.

사람은 **들음으로써 축복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무엇을 행해야 할 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수용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2] 듣지 못하는 어려움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가운데 먼저 양육자(엄마)의 말을 들으며 성장하게 되죠. 인생 초기에 무슨 말을 듣는가가 중요한데, 아기는 학습전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양육자의 표정과 말의 톤과 느낌이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기는 자신에게 전달된 감정적 언어들로 인해 앞으로 자기 언어를 생산해낼 내면의 언어 모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인성의 중요 부분입니다.

만일 언어 모판이 어릴 때부터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하나님 말씀이나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서 듣기 쉽습니다. 말의 해석이 삐뚤어지니까 칭찬도 칭찬으로 못 받고, 권면은 무시로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풀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 모판이 건강한지 예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세요.

마 16:19 “...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 왜곡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매인 채로 있어서 하늘의 생명의 축복이 닫힙니다. 결과로 삶이 얼어붙습니다.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하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립니다. 결과로 삶이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잘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묵상 생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할까요?

[3] 묵상과 삶의 변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율법(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들은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말합니다(7~9 절). 말씀은 하나님 인격이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 자체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신을 개발하려고는 애쓰지만 진정으로 변화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자신의 내적 삶의 기반을 흔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나를 압도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깊이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감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춤추시는 분이시다! 습 3:17 이런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들리지 않고,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그분 사랑의 말씀 대로 살아야 하는, 즉,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위기감(?)을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해를 끼치지 않는 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합니다. '그래, 내가 잘 할 때는 기뻐하시겠지...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매력 있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맘 대로 살고 싶어...' '선교사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승복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깊이 들려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그토록 호되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 장 첫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윗과 같이 말씀에 대한 경험적 고백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던가? 아마 성도라면 언젠가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런 일은 자주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맺음>

다윗은 자신의 언어 모판이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크게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발이 기경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묵상에 어떤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묵상 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2.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3.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날을 향해 변화와 성숙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